

마을 성립 당시에 심은 느티나무



지정번호 순창-9-12-64

지정년도 1999

관리기관 순창

수령 310년

수고 20m

흉고둘레 5,5m



전북 순창군 쌍치면

금평리 818

35 ° 29 ' 53.58 " N

126 ° 59 ' 23.52 " E

정자나무(정자목)이면서 신목으로 알려진 보호수(순창-9-12-64) 느티나무는 마을의 일반도로와 마을길 사이의 빈터에 자라고 있다. 느티나무의 나이는 310년으로 추정된다. 나무높이는 20m, 가슴높이 둘레는 550cm 정도이다. 나무갓은 너비가 23m 가량이며, 넓게 퍼져 있다. 원줄기는 높이 2.5m 정도에서 크고 굵게 2갈래로 갈라진 후 다시 가지줄기가 갈라져 전체 나무모양을 만들고 있다. 줄기 밑동은 부분적으로 충전재 처리의 외과수술이 진행되었으며, 중간의 굵은 줄기도 충전재 처리가 되어 보호되고 있다. 생육상태는 보통 이상이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정자나무(정자목) 식재유래와 관련이 있다. 마을의 형성 초기에는 만수동으로 넘어가는 제밀과 박씨 나뭇골 금정굴에서 몇몇 가구가 살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금정굴에서 지금의 장소로 이주하여 마을을 이루었는데, 느티나무는 그 당시에 심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조선 효종 때이었다. 사람들이 추령천

인근에 펼쳐진 돌의 농토를 따라 터를 잡았는데, 이때 스님이 마을을 지나가다가 앞의 강변을 파면 금이 나온다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마을 앞의 강가를 파기 시작하였다. 그랬더니 그곳에서는 금이 아니라 맑은 물이 솟아 나왔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을 '금정'이라 불렀고, 그곳에 자라고 있던 나무를 금정마을 느티나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그때부터 함께 한 느티나무는 1960년대에 어린아이의 불장난으로 나무 중심부가 일주일간이나 타 많은 가지가 고사하였다. 그 후 주민들의 정성 어린 보살핌과 수술로 다시 살아났다. 마을 사람들은 이 같은 시련에도 곳곳이 생명을 지켜 가는 느티나무를 보며 삶의 위안을 얻었다. 마을 주민들은 느티나무를 사람들의 안식처이자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기고 있다. 느티나무 옆에는 '모정茅亭'이 세워져 더운 여름날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다. 호남지방에서는 사람들이 앉아서 쉴 수 있도록 짚이나 새 따위로 지붕을 인 정자를 모정이라 부른다.

